구역예배 말씀

〈2023년 6월 20일(화)〉

구역공과 제1권

(제1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 본문 : 창세기 1:1-25

· 요절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 찬송 : 33장(새찬송가 69장), 40장(새찬송가 79장)

공과내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 광대하고 신비스런 우주는 어떻게 생겨 났으며 그 기원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물음은 인생을 사려깊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이성과 지식으로만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롬 1:19,20)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고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우주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한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하면 우주의 모든 신비가 밝히 깨달아지고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점일획의 틀림이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무(無)에서 유(有)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곧장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광대하고 오묘한 우주를 지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며(롬 4:17),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지으신 만물을 주관하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2. 엿새 동안에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에 다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지으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고 어두움을 밤

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어 하늘이라 부르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땅 위에 풀과 각 종 채소와 과목이 나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땅에 비취게 하시고 그것들로 주야를 주관하게 하셨으며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각 종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각 종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창조를 다 마치셨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며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였으나 초대 교회 때부터 사도들에 의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주의 날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 드리며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3.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질서와 풍요와 빛으로 채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땅은 무질서하며 텅 비고 어두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었고 무의미하며 무가치하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 혼돈의 세계에 질서가 세워지고, 공허한 곳에 풍요로움으로 채워졌으며, 흑암의 세계가 빛으로 밝아져서 마침내 온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또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바다라 칭하시고 뭍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늘에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공중에는 각 종 새를, 땅 위에는 각 종 동식물을, 그리고 바다 속에는 각 종 어류를 만드심으로 공허한 세상을 풍요롭게 채우셨습니다.
성도는 이 같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은 마치 혼돈과 무질서와 어두움의 세계와 같은 고로 어둡고 캄캄한 마음에 무엇보다도 먼저 빛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 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요 1: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삶에 비취어질 때 어두움의 세력은 소멸되고 갈피를 잡지 못하던 인생의 문제들이 질서를 되찾아 해결되고, 공허하던 우리의 환경에는 주님의 풍요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무의미하고 무기력하며 무가치하던 삶이 의미 있고 생명력이 넘쳐나며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